로보틱스
(Overweight)

로봇 산업 포인트

미국이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서기 시작.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과 더불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 산업의 리쇼어링을 추진할 전망. 미국 내 제조 거점을 보유하는 로봇 기업 수혜 전망.

미국이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선다

AI 로보틱스/방산/조선/운송 양승윤_ 02)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 12월 3일 외신 보도(Politico)에서 미국에서 '26년 로봇 관련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에 제기되면서 미국/일본/한국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기록.
- **[1]** 미국 상무부는 이미 9월 2일 Section 232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Notice of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Robotics and Industrial Machinery). **로봇 및 산업 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국내 수요, 국내 생산 능력, 외국 공급망의 역할, 수입 집중도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요청.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의 영향, 인위적으로 억제된 가격의 경제적 영향, 외국 국가의 수출 제한 가능성 등도 포함. 국내 생산 능력 증대 가능성, 현행 무역 정책의 영향, 로봇 사용이 미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꼽힘.
- 참고로, 상기 의견 요청에 대해서 NAM(전미제조업협회), 미국 상공회의소, AAI(자동차혁신연합), A3(자동화진흥협회) 등 미국의 주요 기관에서는 모두 로봇 및 산업 기계가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필수적이며, 이 장비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오히려 국내 제조업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 주장. **관세 대신 국내 생산 능력 강화, 인력 개발,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촉구 중.**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동맹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됨. 미 상무부는 본 의견들을 참고하여 '26년 5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의견 제출 예정(조기 제출 가능). 보고서 제출 후 대통령은 90일 이내 조치를 결정해야 함(관세 등).
- **[2]** 12월 3일,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 산업계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있음. (2) 이르면 2026년에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발표를 검토 중. (3) 미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25년 연말 이전에 '로봇 실무 그룹(Robotics Working Group)'을 출범시킬 예정.
- 행정명령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 구체적인 사항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1) 엔비디아의 젠슨황 CEO가 AI의 종착점을 로봇으로 점 찍었듯, 미국 정부도 AI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탑재할 물리적 로봇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 능력을 되찾아오겠다는 의도로 보임. (2) 로봇을 미국 제조업 및 국가 안보 관점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 (3) 로봇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 중인 중국에 대한 선제적인 견제 움직임.
- 결론적으로 상기 [1]과 [2]는 별개의 사안이나, **결국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로봇 산업을 부흥하겠다는 미 정부의 일관적인 기조가 확인됨.** [1]은 규제적 관점, [2]는 지원과 육성의 관점으로 판단.
- 타 산업에서의 미 정부 기조로 보아, **로봇 분야에서도 미국 현지 생산, 미국산 로봇 수출 확대 등 움직임 가능성 높음.** 미국은 제조 능력이 약점.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제조 능력이 검증된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 높다는 판단.** 1차적으로는 로봇과 부품을 미국 내 제조하는 기업 수혜. 2차적으로는 중국산 로봇/부품 배제 기대감에 의한 국내 부품/산업용/협동/물류로봇 분야 또한 관심 유효.

도표 1.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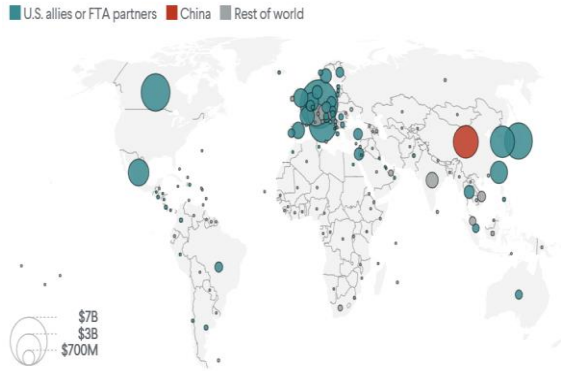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2. Section 232 조사(로봇 관련)

주요 내용
수요: 미국 내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현재·향후·최적 수요 수준
국내 생산능력: 국내 생산이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비율과 한계
해외 공급망 역할: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 충족에 기여하는 정도
수입 집중·위험: 특정 국가·기업에 수입이 집중된 정도와 그로 인한 공급 리스크
외국 정부 영향: 보조금·덤핑 등 외국 정책이 미국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가격 억제·경제 영향: 과잉 생산·저가 공세로 인한 가격 억제가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제한 리스크: 외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내 생산능력 확충의 실현 가능성
무역정책 영향: 현행 무역정책이 국내 생산에 미치는 효과와 추가 관세·쿼터 필요성
고용 효과: 로봇·산업기계 사용 여부가 제조업 고용 수준·구조에 미치는 영향
외국 통제·착취 가능성: 공급망에 대한 외국의 지배·남용 가능성
외국산 장비의 무기화 가능성: 외국산 로봇·산업기계·부품이 운용 측면에서 무기화될 위험
국가안보상 역할: 국가안보 필수 품목 생산 및 안보 관련 활동에서 로봇·산업기계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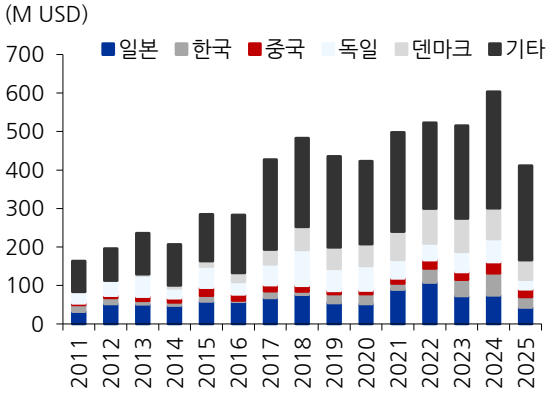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유진투자증권

도표 3. 미국의 로봇/기계 수입 지역 및 규모



자료: CFR, 진투자증권

도표 4. 미국의 산업용 로봇 수입 동향(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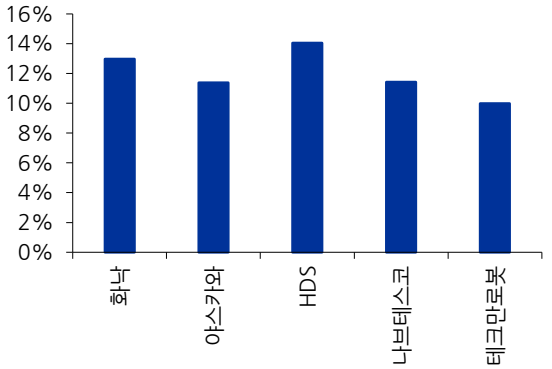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 5. 미국 내 로봇 제조 거점

기업명	내용
FANUC	미시간에 생산 거점 보유. 전체 캠퍼스 규모는 200 만 sqft
YASKAWA	위스콘신에 신공장 구축 추진
Harmonic Drive Systems	미국 내 제조 거점 다수 보유
ABB	미시간에 생산 거점 보유. 2023 년 증설
현대자동차	2028 년까지 연 3 만대 규모 양산 공장 구축 후 2029 년 양산 개시 계획

자료: CFR, 진투자증권

도표 6. 주요 해외 기업 주가 상승(12/04)



자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7%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9.30 기준)